

위험감수성의 필요성





1. 과거의 재해 교훈의 미활용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근대화된 설비에 대한 위험성,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재해를 통해 비로소 지금까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도 발생 재해에 대한 개별적 원인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쌓여 과거에 비해 유해 위험성과 재해방지 대상에 대한 지식도 현격히 높아졌다.

대규모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에 벌어진 사업장 내 재해의 대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재해로부터 얻어진 재해방지대책의 지식 실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과거의 재해 교훈을 활용하지 않은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재해방지대책 수립의 기본은 과거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위험감수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

가. 원격감시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화가 강조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직장에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인원의 여유가 부족해지고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게 됨에 따라 직장의 위험을 간파하는 안목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점검하던 작업이 기계를 활용해 원격 감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결과, 온도·압력·유량 등 다양한 측정 부문에서 정확한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계라고 해서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눈, 코, 귀 등과 같은 훌륭한 센서가 있는데, 이는 기계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주변의 '이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람의 오감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징조를 기계의 원격감시로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나. 편중된 하향식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기계·설비의 안전대책을 우선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어 각 기업에서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기계·설비 면의 안전대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견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이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후의 민사재판의 판례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그간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안전은 의례히 상명하달 방식(Top Down)으로 관리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근로자의 창발성(創發性)을 끌어내는 하의상달 방식(Bottom Up)의 안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은 결과, 관리·감독자, 작업자 모두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둔감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 현장감각의 부족

예전에는 매월 재해가 발생하던 직장에서도 최근에는 3년, 5년 이상 재해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직장에서 재해의 발생빈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을 직접 보고 재해의 비참함, 무서움을 실감할 기회가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재해에 의해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몸에 습득할 기회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진행된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에 의해 감독자는 시간적

기계라고 해서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오감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징조를 기계의 원격감시로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으로 빠듯해지고 관리자도 사무업무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안전 최우선의 경영방침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자가 안전의 눈으로 현장을 꼼꼼하게 보고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적어지고 현장지식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들 요인도 관리·감독자와 함께 작업자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작업장의 책임자는 바쁘더라도 스스로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가급적 매일 현장의 실태에 관심을 갖고 위험을 통찰해야 사고·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작업장의 책임자는 바쁘더라도 스스로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가급적 매일 현장의 실태에 관심을 갖고 위험을 통찰해야 사고·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유아기부터 위험예지능력을

얼마 전, 평일 오후 시간대에 1호선 전철을 탔다. 승객은 적었고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내가 앉은 좌석의 맞은편에는 4살쯤 돼 보이는 아이와 아이의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아이는 답답했는지 차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윽고 전철이 어느 한 역에 정차했고 문이 열렸다. 내리거나 타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는 혼자 열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모친은 의자에 앉은 채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모친 가까이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위험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가 아이를 잡아끌려고 다가갔을 때 문이 닫혔다. 모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모친이 보인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메마른 행동에 적잖이 놀랐다.

이따금씩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통학로 방향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든다. 차가 가까이 접근해도 멈춰하지 않고 태연하게 길을 건너는가 하면 옆을 보지도 않고 뛰어가는 학생도 있다.

이는 유아기 때 공공도로에서의 매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배워본 적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부모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제 자식들을 방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4. 재해 제로에서 위험성 제로를 향하여

사업장 내에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원이 나서



‘안전제일’이라는 사풍(社風)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해 제로 상태더라도 더 노력하여 작업장에 잠재돼 있는 위험성(Risk)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자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안전이 기업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

또 사업장 내 안전슬로건은 정신론(精神論)이나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실천과 연결시켜 안전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장이란, 잠재적인 위험원이라 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Hazard)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나가는 작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포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을 구축·운영과 더불어 일상에서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5. 전철 방식의 안전활동

관리·감독자의 리더십 하에 추진되는 안전활동, 즉 관리·감독자 주도의 안전활동에서는 자칫 작업자가 피동적인 대응을 하게 되어,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상안전활동인 위험예지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근로자 모두가

일상안전활동인
위험예지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안된
활동이다.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안된 활동이다. 이른바 많은 차량을 끌어당기는 ‘기관차 방식’에서 모터가 딸린 각각의 차량이 연결되어 스스로 달리는 ‘전철 방식’의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위험예지활동은 위험을 예지할 때에 아이디어 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의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위험을 서로 예지하고, 예지한 위험에 대하여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의 참가의식이 높아질 수 있고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잠재위험을 적출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6. 잠재위험의 통찰

최근 많은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과거에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보고된 아차사고, 각 계층에 의한 안전순찰, 작업자에 대한 청취조사,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 물적 측면과 인적 측면, 즉 양면에 걸쳐 위험성을 추정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잠재적 위험원인인 유해위험요인을 예리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끌어올려 위험을 통찰하는 힘을 익힘으로써 잠재된 위험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내 현장을 살피며 ‘위험물과 작업환경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상을 일으킬 것으로

작업장 내 현장을 살피며 설비, 환경, 사람의 움직임을 유해위험요인 유형별로 나눠 통찰하고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적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되나?’, ‘기계·설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휴먼에러를 예상하며 기계·설비의 작동 중 근로자가 어떤 실수를 벌일 거 같은가?’ 등 설비, 환경, 사람의 움직임을 유해위험요인 유형별로 나눠 통찰하고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적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업부문의 관리·감독자에게는,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간파하여 사고·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형태, 설비상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찰하여 스스로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경영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점(定點)관찰(위험을 예지하는 대상의 작업장소에서 멈추어 서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독자는 개개인의 특성을 평상시에 파악해 두고, 안전에 대하여 수준이 낮은 사람, 걱정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정성을 들여 개별적으로 안전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개별 위험예지

위험예지활동은 개인보다는 팀 전체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을 선취하는 효과가 크다.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자 개개인의 능력과 작업자 한명 한명이 수행하는 작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분화된 위험예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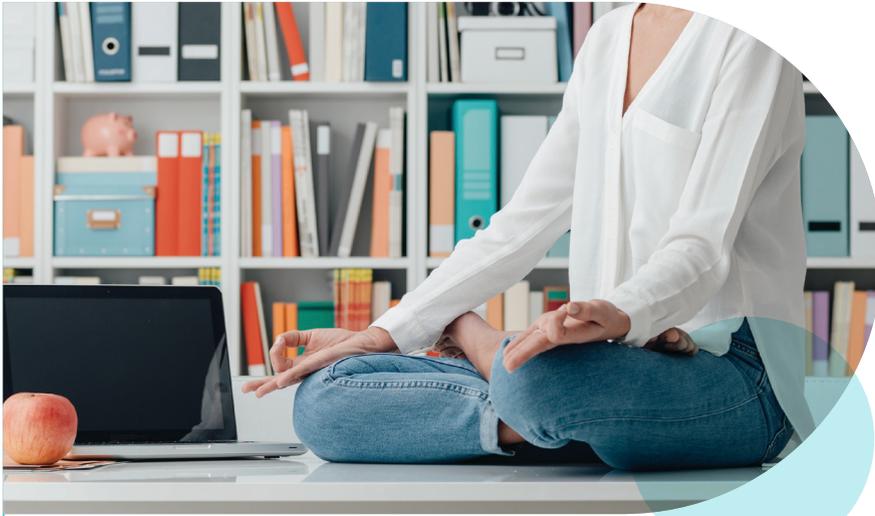
각각의 작업자는 작업내용뿐만 아니라 지식·기능·성격·위험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 다르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행동목표를 정하는 것에 추가하여, 개개인이 행하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행동목표도 필요하다.

감독자는 개개인의 특성을 평상시에 파악해 두고, 안전에 대하여 수준이 낮은 사람, 걱정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정성을 들여 개별적으로 안전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예지활동을 하여 팀 행동목표를 제창한 후에, 감독자는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 걱정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특히 ○○○씨는 △△을 할 때에 ◇◇을 하도록!”이라고 개별적으로 안전지도를 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8. 명상으로 자기 위험예지를

‘작업 전 명상’도 개별 위험예지활동과 더불어 안전활동으로 효과적이다. 이



명상은 안전관리활동으로도 유명한 일본 松下電工(현 파나소닉電工) 사업장에서 30MI(30초간 명상타이밍)라고 명명하고 실시한 것으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이다.

정상작업이든 비정상작업이든, 나아가 건설공사이든, 어떠한 작업이라도 작업개시 전에 미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미팅의 최후에 명상을 하는 것이다.

명상이란 ‘눈을 감고 잡념에서 벗어나 깊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각자가 금일 하루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한다. 감독자의 “명상 개시!”의 신호에 따라 모두가 일제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30초간 명상을 한 후 감독자가 누군가 1명을 지명하여 “어떤 것을 명상하였는가?”를 모두에게 간결하게 소개하게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감독자가 한마디 코멘트를 주어 관심을 보인다. 이것을 매일 계속한다. 사람수가 적으면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발언하게 해도 좋지만, 사람수가 많으면 시간이 걸리므로 1명만 발표하게 한다.

누가 지명될지 알 수 없으므로 모두가 각자 진지하게 명상하게 된다. 이 명상을 매일 계속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이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지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상을 매일
계속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이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지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9. 못 하나에도 위험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예전부터 '안전에는 겁쟁이가 되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에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이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소한 것도 불안전하다고 바로 알아차리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박혀 있던 못 하나가 조금 빠져 못 머리가 나와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을 보고 무엇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많다.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못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험하다고 느낀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뺄 후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곳에도 위험한 못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나아가 '왜 못이 빠졌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한다.

위험에 대한 높은 감수성은 보고된 아차사고, 현장순시 중의 발견 등을 통해 잠재위험을 배제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 관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이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행동을 초래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직장의 잠재위험을 없애고 무재해를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해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빙산의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

위험에 대한 높은 감수성은 보고된 아차사고, 현장순시 중의 발견 등을 통해 잠재위험을 배제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